

내년 경기도 예산 도민과 함께

2006년도 예산 및 주요시책 도민 의견 수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先 계획 後 예산편성'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06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사이버 및 서면조사에 의한 의견수렴과 분야별 공청회, 분야별 예산 심의회와 종합설명회 등을 순차적으로 갖기로 하였다.

지난 4일 개정 공포된 새 지방재정법이 지방예산 과정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도민의 의견

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한 것으로 도민들의 의견은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운영 방향,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배분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분야 ▶농정농촌분야 ▶환경농업분야 ▶관광문화분야 ▶보건의료분야 ▶보건의료분야 ▶환경농업분야 ▶건설교통분야 ▶가족여성정책분야 등 7개 분야는 필수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하고 나머지 지원업무 및 법령에 귀속되는 분야가 많은 기획, 자치행정, 도시주택국 주

요업무 및 예산은 도민의 의견을 참고로 하기로 했다.

도는 주민의견의 수렴을 위해 8월 말까지 20일간 사이버 설문 및 지역별 서면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7개 각 분야별 설명회를 거친 후 10월 14일 종합설명회를 갖고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2005년도 예산은 시·군 예산을 제외하고 9조 3231억원에 이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상반기 전자계약 이용 우수기관 선정

의정부시 조달청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지난 11일 조달청으로부터 2004년 1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의 보급·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에 이어 2번째로 전자계약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의정부시는 관내·외 건설업체들로부터 계약에 따른 자치단체의 증빙문과 관련 서류작성 등 불편을 해소하여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다.

또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전자계약 도입을 위한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금번 감사패 수여는 이러한 전자계약 이용과 보급에 앞장 선 그간의 공적을 새롭게 인정받은 것이다.

전자계약은 계약 요청단계부터 계약체결 및 대금청구까지 모든 과정이 완전히 전자화됨으로써 관련 건설업체들이 PC에서 모든 계약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종전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일일이 계약서와 산출내역서 등 각종 계약부속서류에 날인을 찍던 것을 전자계약을 도입한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한 공인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게 되어 건설업체들이 계약체결을 위해 시를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계약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시는 지난 1년간 시설공사·용역·물품 등 총646건에 609억의 전자계약을 성사시켰으며 대금청구시발된 지방세 및 국제안담증명서도 정구치 않고 G4C(정부보유정보)를



의정부시는 지난 11일 조달청으로부터 전자계약 이용 우수기관 선정패 감사패를 받았다.

통해 확인 하고 업체가 세무서 등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어줌으로써 통상 5회 기관방문을 단회로 단축시켜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 업체의 편의 도모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공로로 기관 감사패 수여와 함께 전자계약 시행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행정7급 이종태)에 대한 조달청장의 표창과 부상도 함께 수여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5 셰익스피어 낭만극 페스티벌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3개작품 무대에 올라

'사랑의 헛수고'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 여름밤의 꿈'



이벤트 페스티벌을 위해 현대적 감성과 언어의 흐름에 맞게 새롭게 개역한 희극 3작품을 무대에 올린다는 점에서 이번 페스티벌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벤트 2005 셰익스피어 낭만극 페스티벌은 관객들에게 셰익스피어의 참 맛과 더불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셰익스피어 완역자인 신정욱 교수의 번역은 이 공연들에 셰익스피어의 언어들이 지니고 있는 시적 아름다움과 다양한 어휘 그리고 기막힌 비유적 표현의 창출에 공조하며, 비단 시각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청각적 즐거움을 배가 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의 헛수고(Love's Labour's Lost)』 - 극단 여기 언어의 연금술로 빛어낸 유쾌한 정통 희극

재기발랄한 프랑스의 공주와 진지한 성품의 나바르 왕국의 왕, 그리고 세 명의 귀족들과 세 명의 시녀들 사이의 유쾌한 로맨스를 다룬 '사랑의 헛수고'는 당시 공장에서 매우 인기 있던 주제 가운데 하나인 사랑을 다룬 희극이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연극계에서 새로운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3개 극단(순, 여기, 주변인들)과 손잡고 특별한 셰익스피어의 낭만극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특히 셰익스피어학회장을 지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셰익스피어 작품 37권을 완역한 신정욱 교수가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현대적 감성과 언어의 흐름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 - 극단 주변인들 최충우등 말괄량이 길들이기 프로젝트

그 제목부터 흥미로운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두 갈래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말괄량이 캐서린과 그를 길들이려는 페르루치오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판과 착한 동생 비앙카를 사이에 두고 세 명의 청혼자들이 벌이는 오묘한 사랑의 흥미진진한 대결이 그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만나 충돌하는 그 생명력은 배우들의 역동적인 연기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낯설지 않게, 편안하게 다가갈 것이다. (9월3일~4일 토요일 오후5시, 일요일 오후8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한 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 - 극단 순 한여름 밤에 펼쳐지는 네 남녀의 엇갈린 사랑이야기

약혼자 드미트리야스가 아닌 라이샌더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계획한 허미아, 그들을 쫓는 드미트리야스, 그리고 또 그 뒤를 따르는 드미트리야스의 옛 연인 헬라, 셰익스피어는 이들 네 남녀 사이에 얽혀있는 사랑을 통해 꿈은 꿈인 뿐, 그것들은 마치 한 여름 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현실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9월8일~9일 오후7시30분,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한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 - 극단 순 한여름 밤에 펼쳐지는 네 남녀의 엇갈린 사랑이야기

한편,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첫날인 오는 31일 오후 5시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셰익스피어 희극'이란 주제로 신정욱 교수의 특별강연도 개최된다. 공연문의 031-828-5841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문원 시장 실버세미나 특강

'고령화 시대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보여주자'



의정부시 대한노인회 가능2동분회(회장 문태년)는 지난 17일 가능2동 소재 노인복지회관에서 가능1, 2, 3동 지역 및 의정부2동 노인대학 학생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노인상"이라는 주제로 실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실버세미나는 노후를 맞이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의 봉사를 통한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성을 보여주는 주제로 김문원 의정부시장의 특강과 대한노인회 가능2동분회 문태년 회장의 연설이 있었고, 또한 참석자들과 토론회도 거쳐 참여한 노인대학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한노인회 가능2동분회는 실버세미나에 참가한 노인대학 학생들에게 보양탕과 육개장을 대접하여 회원들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노년을 즐겁고, 보람되게 살며,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8·15 광복 60주년 중앙 경축식 공연

의정부시무용단, '未來를 향한 힘있는 出發'

의정부시무용단(단장 이미숙)은 지난 15일 8·15광복 60주년 중앙 경축식에 참석 '미래를 향한 힘있는 출발, 겨레의 새빛' 공연에 참가했다.

이번 공연에서 광복 60주년을 맞아 미래를 향한 힘있는 출발, 겨레의 새빛을 표현한 무대로 대한민국 의역동적 성장을 기원하는 기원무

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의정부시무용단을 비롯해 인천시립무용단과 중앙대립무용단, 중앙대학교 무용단, 한국체육대학교 무용단 등이 참가한 연합무용단 260명으로 구성된 무대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무용단은 지난 15일 8·15광복 60주년 중앙 경축식 공연에 참가했다.

꽃샘은 자연과 인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 담은 꽃샘종합 선물세트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꽃샘벌꿀은 맑은 새벽이슬의 꽃향기를 정성껏 담은 자연 그대로의 고농도 순수한 벌꿀입니다.

(주) 꽃샘종합식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031)541-9921(代) FAX.031)541-9933

소비자상담실 : 031)541-9922

대표이사 : 이상갑

